



## 대전광역시 이관우 보건과장

이관우 보건과장은 '66년 보건직으로 첫발을 들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년 세월을 대전·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청병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 왔었다. 그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보건행정 전개에도 힘쓰고 있다. 이과장의 이와같은 의지와 확신은, '93년에 세계에서는 두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전광역시민 위(암) 무료이동검진을 시작하게 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헌신적 봉사의 자세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는 이관우 과장의 말이 결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님은 이 사업의 성과 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세계화에 걸맞는 선진보건 행정수립에 오늘도 여념이 없다.

추천인: 김치수(건협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